

번번이 휴가를 나설 때면 광화문광장에 발이 잦았다. 북적대는 거리가 좋아서 입대 전에도 즐겨 찾던 장소였다. 줄지어 늘어선 마천루와 웅장한 고궁에 시선을 빼앗기기 일쑤였지만, 유독 전투복을 입으면 이순신 장군 동상 쪽으로 마음이 이끌렸다. 군인, 특히나 바다와 함께하는 해병이기 때문일까 충무공상 앞에서 서면 묘한 동질감이 솟아오르던 적도 많았다. 그러나 조선시대를 살아간 위인과 오늘날의 평범한 청년이 교집합을 이루기란 여간 어렵지 않았고, 바라볼수록 오히려 커지는 경외심에 도리어 당혹스러웠다. 그렇게 몇 차례의 휴가를 맞이하더니 어느덧 내군 생활은 훌쩍 지나가 있었다. 하지만 알수록 복잡한 인간관계 앞에서 배짱 좋게 리더십을 펼치지 못했고, 자신감을 잃다보니 군복무라는 역경이 원망스러워졌다.

그러나 문득, 휴가마다 마주하던 충무공을 떠올렸다. ‘영웅은 절망의 순간에 나온다’는 말처럼 완벽한 그이에게도 인간적인 고뇌가 존재하지는 않았을까? 게다가 수군통제사에 올라 전장을 이끌던 내력은 요즈음 나를 둘러싼 상황과 꽤나 흡사하게 느껴졌다. 고난을 헤쳐 나가는 주인공과 그의 리더십을 다룬 드라마에 나는 점차 매료되어 버렸고, 감정을 이입해버린 나머지 주인공의 궤적을 좇고자 <난중일기>라는 시나리오를 결국 손에 쥐기에 이르렀다.

흔히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미지는 근엄한 장수로 남겨지곤 한다. 홀로 번뇌하며 위엄을 한껏 갖춘 지휘관을 상상하지만, 일기에 드러난 충무공은 무수한 대화를 나누는 남다른 친화력의 소유자였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매일같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면, 쉽 없이 드나드는 방문객을 기록한 대목들은 빠지는 날이 드물었다. 그만큼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졌다는 반증이라고 여겨졌다. 더욱이 상하관계가 뚜렷한 해병대에서 생활한 탓인지, 후임들에게 평소 고압적으로 대해왔던 내게 난중일기에 드러난 소통의 리더십은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었다. 먼저 틈을 열지 않았으면서, 솔직한 대답을 바라는 나는 이기적인 사람에 다름없었다. 반복되는 앵무새 같은 대답에 답답하다 느꼈지만, 원인은 오히려 가까이 있었다. 나아가 최근 병영생활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선후임 사이의 불화 또한 소통의 부재가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인화를 도모하려는 조직의 지도자는 귀를 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일기는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창구를 누구에게나 열어놓는다면, 들리는 모든 의견을 신뢰한다면 굉장한 위험에 놓이고 만다. 게다가 조직의 향방은 대부분 리더의 판단에 의지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충무공 역시 정보의 혼란을 경계하려 노력했다. 전투를 앞두고 피란민의 소문부터 탐방선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두고 정황을 종합하여 가장 확실한 내용만 추리고자 애썼다. 특히 계사년 7월, 진주성 함락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와 명량해전을 위시한 전투의 앞뒤 기록은 판단과 결정의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

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병영 또한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작은 사회로 꾸려지는 영내생활의 특성 탓에,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평판이 빠르게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그러다보니 쉽게 오해가 불거지고, 결국 전우애만 상하는 결말도 부지기수였다. 더욱이 팀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끄는 분대장이기에, 범람하는 소문에 한층 더 신중해야한다는 교훈을 전란의 기억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의 순서처럼 외부에 반응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한다. 자신으로 하여금 무리의 표본으로 삼아야하기 때문이다. 누구든 리더를 지켜보고 따르기에 매사 행동은 주의 깊어야한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 없어 술자리를 절제하고, 완벽하지 않자 아픈 몸으로도 다시 문장을 짓는 갑오년 3월의 사연은 쉬이 나태에 젖어가던 내게 경종을 울렸다. 또한 공정하게 휘하 장졸을 다스리고 폐단에 엄중히 맞서는 광경은 청백이 더해진 솔선수범이야말로 윗사람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준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특히나 말년병장이라는 이유로 폐습을 적당히 눈감아왔었기에 부끄러움은 한층 더 컸다.

하지만 역사의 수많은 영웅들 가운데 유독 충무공이 돋보이는 까닭은 불행을 극복하는 인간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군 문화에 익숙해질수록, 커지는 사회와의 괴리를 실감하며 좌절에 빠지는 순간이 빈번했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만나는 각양각색의 군상과 맺어지는 관계에 스트레스만 쌓여 한숨만 쉬기도 했다. 그러나 모함으로 고초를 겪은 데다, 설상가상으로 떨어져있는 가족들의 안위마저 위태렸던 인물에게 내 고민을 비교하기란 가당키나 했을까? 다름없이 한 사람의 나약한 인간이었는지 당시의 기록에는 자책과 슬픔이 뒤엉켜 눈물을 자아낸다. 보통 연이어 닥쳐오는 고난은 쉽사리 상대를 굴복시킨다. 그러나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지듯, 수난을 이겨내고 영예를 얻은 충무공의 사례는 지쳐가던 군복무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격려와 위로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매일같이 닥쳐오는 변란의 와중에도 일기는 대부분의 나날을 담아내고 있다. 학창시절 일기를 쓰다보면 웬지 하루를 성찰하듯,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곤 했다. 수천 군졸의 생사여탈을 손에 쥐고 흔드는 충무공에게 평정심의 유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을 것이다. 승리한 날이나 가족의 소식이 비보로 전해지는 순간에도 붓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듯 매일을 기록하며 자기관리에 충실했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가볍게 감정을 드러내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더불어 리더란 언제나 이성적인 얼굴을 보여야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다.

충무공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작금의 나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 두어 그리워했고, 때때로 긴장하고 두려워하며 매일을 버티던 불완전한 인간이었다. 하지만 한계를 넘어 끊임없이 완벽에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순신이란 인물에 감동하고 친근하게 느끼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과감 없이 인간 이순신을 조명하기에 <난중일기>는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 숨 쉬고 있는지 모른다.